

따오기 살리고 섬마을도 살린 사도가시마의 친환경 농업 ▶시리즈 13편



지난 27일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가시마의 친환경 농에서 먹이를 먹던 따오기가 인기척에 놀라 날아오르고 있다.(왼쪽 위는 자연 방사를 앞두고 보호센터에서 적응 훈련 중인 따오기 모습)

따오기는 국내에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자취를 감춰 최근 중국에서 2마리를 들여오는 등 복원 작업 중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자연 상태의 따오기는 이렇게 사진으로 밖에 볼 수 없게 됐다.

일본 서쪽 섬 사도가시마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으로 멸종위기종 따오기의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 사도가시마는 지난 1981년부터 마지막 남은 따오기 5마리와 중국에서 들여 온 7마리를 보존하면서 인공 부화에 성공해 따오기를 풀어주고 있다.

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논의의 일부는 농사를 짓지 않고 비워두고, 친환경 농업으로 미꾸라지 등 따오기의 먹이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38년 만에 야생에서 따오기 자연 번식에 성공해 8마리의 새끼가 태어났고, 올해에도 5마리가 자연 상태에서 부화했다.

일본 정부는 인공부화와 자연상태 부화 등을 통해 사도가시마에 1000여 마리의 따오기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오기가 찾아오면서 사도가시마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고, 지역 쌀이 고가에 팔리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일보의 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사도가시마와 노르만도 계단식 논 의 성공 사례와 보존 현황 등을 현지 취재해 두 차례로 나눠 소개한다.

/일본 사도가시마=오광록기자 kroh@ /사진=니명주기자 mjna@

6·4지방선거 11개월 앞...광주전남 공직자·시도의원, 단체장 출마 러시 왜?

6·4지방선거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만 되면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의 도전이 잇따르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긴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는 그 숫자가 예전의 2배에 이를 만큼 크게 늘었다. 광역의원들도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재선이나 3선 도전보다는 '체급'을 한 단계 높여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는 입지자가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안철수 신당' 창당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선택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진출에 성공한 공직자 출신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일 지역정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거나 출마를 고심 중인 광주·전남지역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줄잡아 2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과거 10여명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에 도전하거나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회의 의원들도 30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또한 과거 지방선거에 비하면 10~15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안신당 출범하면 선택폭 넓어지고

정당공천 폐지엔 맨몸 맞대결 승산

무주공산 지지체도...입지자 예전 2배 50여명

이처럼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는 고위 공직자들과 광역의원들이 늘어난 데는 '안철수 신당'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안철수 의원 측이 독자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며 지역별로 인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창당될 경우 정당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정치권의

새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울 경우 내년 선거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한 몫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공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당공천이 폐지될 경우 당내 기반이 약한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정당 출신 후보들과 대등한 승부를 펼쳐 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직자 및 광역의원 출신 후보들이 자치

단체장에 당선된 사례가 늘어난 점도 이들의 도전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재 광주 5개 구청장 가운데 3명이 공직자 출신이고, 최영호 남구 청장은 광주시의원 출신이다.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 가운데 8명(36%)이 공직자 출신이고, 김철주 무안군수와 박철환 해남군수 등 6명(27%)은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교육위원을 지냈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3선에 묶여 '무주공산'이 되는 선거구가 많다는 점도 후보 난립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남의 경우 정종득 목포시장과 이상용 광양시장, 김종식 완도군수 등 3곳의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상 '3선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광양·목포시장, 완도군수 등의 경우 도전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경우 특성상 공천이 확실하거나 당선 가능성이 높아야 출마를 한다는 점에서 출마 예정자 중 상당수는 중도에 포기할 수 있고, 광역의원들도 정치적 중립감을 높이고 이틀값을 올리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중도 포기자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인비 메이저 3연승...63년만의 대기록

LPGA US오픈 우승 시즌 6승...한국인 최다승

세계랭킹 1위인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세계 여자골프에서 63년만에 메이저 대회에 3회 연속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관련기사 14면>

박인비는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사우스프린턴의 서보백 골프장(파 72·6821야드)에서 열린 제68회 US여자오픈 마지막 버디 2개, 보기 4개를 적어내 2오버파 74타를 쳐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올 시즌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과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에 이어 US여자오픈까지 제패한 박인비는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가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1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서보백 골프장에서 열린 제68회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운 시즌 개막후 메이저대회 3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박인비에 4타 뒤진 김민정(25·하나금융그룹)이 2위를, 2011년 이 대회 우승자인 유소연(23·하나금융그룹)이 함께 1언더파 287타로 3위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선수가 우승, 준우승, 3위까지 상위권을 점령했다.

또 박인비는 2008년 US여자오픈까지 포함해 메이저대회 개인 통산 4승을 수확했다. LPGA 투어 통산 승수는 9승으로 늘어났다. 올 시즌 여섯 개의 우승컵을 수집한 박인비는 2001

년과 2002년 박세리가 세운 한국 선수 시즌 최다승 기록(5승)도 갈아치웠다.

우승 상금 58만5000달러(약 6억 6600만원)를 받아 시즌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한 박인비는 상금 부문과 세계랭킹, 올해의 선수 포인트 등에서 1위 자리를 확고히 다졌다.

박인비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자하리아스와 같은 선수와 이름을 같이 올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에닝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7월호
6월 27일 발매

기획 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벽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커버스토리
올 여름 힐링이 필요한 당신
걷기, 명상, 문화충전 어때요?
제주올레길, 광주전남 치유의 길,
템플스테이, 문화축제
생생한 체험의 현장과 활용 정보 수록

기획 특집
티끌모아 예술 투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희망을 본다
크라우드 펀딩 성공사례와 가능성 진단
착한 자본이 완성한 소록도 벽화 프로젝트, 영화 26년

스페셜 인터뷰
치유의 길, 희망 개척한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
올레길 뒤는 자연과 길에서 배운 삶의 의미

마주앉은 책과 삶
사진작가 배병우
세계가 감탄한 빛 그림 '소나무'
치밀한 작가정신을 만나다

이달의 아티스트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이다"

글로벌 아트
떠오르는 미술시장, 홍콩을 가다
아트바젤 홍콩에서 전망하는 아시아 미술

여행작가 노준호와 떠나는 '우리 땅 속살 여행'
역사, 자연, 사람, 사할 끝없는 해남의 매력

문화동행, 편편 클럽
자부심을 연주하는
정음문화원 수제천 연주단

행복한 걸력터
30년 동안 옛 책 10만여 점 수집해 온
화봉문고 '여승구' 대표의 각별한 고서 사랑

스타 데이트
광주출신 '국민 첫사랑' 수지와 첫 데이트
"내년에 스무살, 하고 싶은 것 많아"